



2026. 10. 16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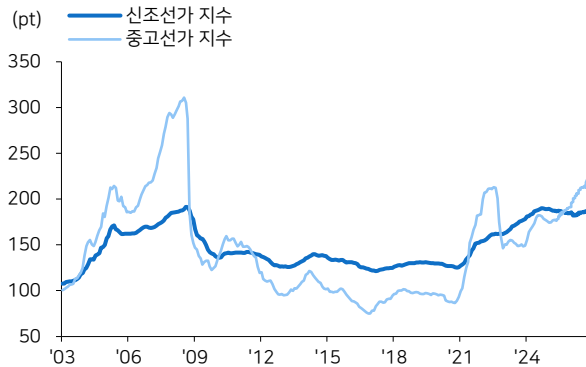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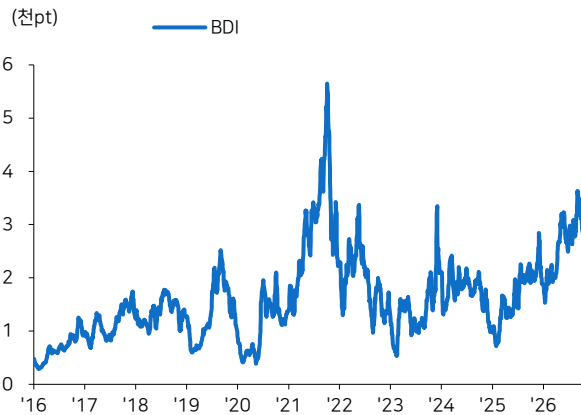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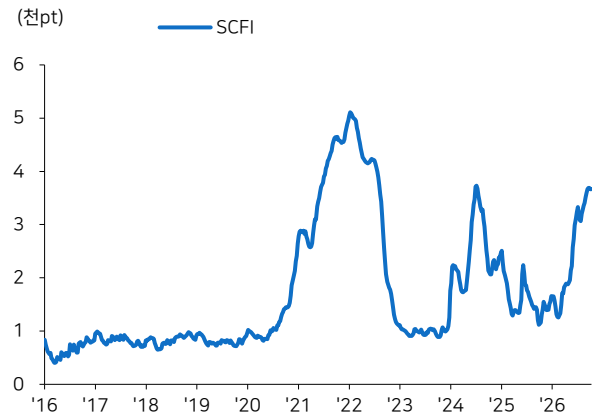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67.0p (-13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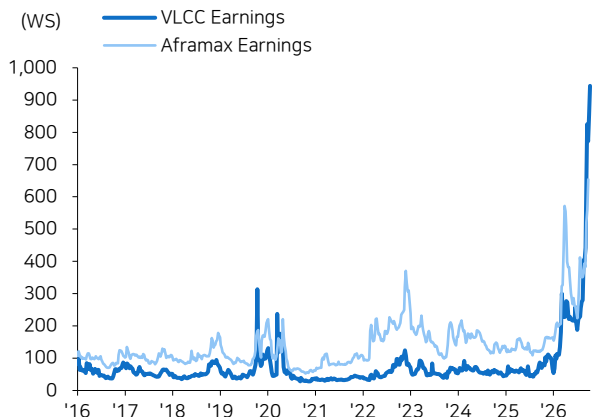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64.1 (+1.8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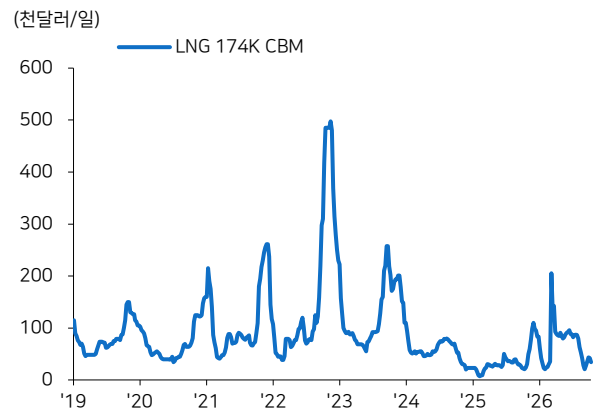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44.2WS (+91.8 WoW)



LNG Spot 운임

34.3천달러 (-8.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commits \$1.6bn to order a dozen container ships in major fleet investment (TradeWinds)

<https://zrr.kr/t5prjk>

HMM이 컨테이너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조1,6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으며, 13,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신조와 2,800TEU급 3척 및 1,700TEU급 1척 등 기존 발주 신조선 4척의 재매입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이번 투자는 HMM 자기자본의 8.16% 규모로, 최종 선박 인도 예정 시점인 2029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지난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발주한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0척도 2028년 중반부터 2029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HMM은 이번 추가 발주를 통해 선대 확장과 노후 선박 교체를 이어가는 한편, 컨테이너선 외에도 탱커·가스운반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英무역특사, HD 현대중공업 찾아 조선·해양 협력 논의 (뉴시스)

<https://zrr.kr/rshvK9>

영국 무역특사 존 슬링어(John Slinger)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선박·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양국 간 조선·해양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기술, 해양에너지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소개했으며, 양측은 조선·해양 분야를 비롯해 방산,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고 알려짐. 올해 7월 앤 공주의 방문에 이어 영국 주요 인사들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는 롤스로이스(Rolls-Royce), 뷰포트(Beaufort), 밥콕(Babcock) 등 영국 방산 기업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짐.

HJ 중공업, 첫 미 해군 함정 MRO 성공적 완수... "후속 수주 힘쓰겠다"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X9yCOI>

HJ중공업이 미 해군 4만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선체·주요 시스템 점검, 설비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등 첫 함정 MRO 사업을 완료하고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출항시켰다고 보도됨. 당초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었으나 정비 과정에서 계약 범위 외 추가 결함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사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고 알려짐. HJ중공업은 올해 1월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국내 조선사 중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세 번째이자 중형 조선사 최초로 자격을 확보했으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미 해군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후속 MRO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포스코 개발 고망간강, LNG 선 화물창 실증...한화오션과 맞손 (연합뉴스)

<https://zrr.kr/AOIlCH>

포스코와 한화오션이 포스코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을 대형 LNG 운반선 화물창에 적용하기 위해 실증선 확보 및 운항 검증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고망간강은 영하 163도 이하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하며, 기존 화물창에 사용되는 고가의 니켈 합금강(INVAR) 대비 원가 및 소재 수급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기화율 조절과 솔로싱 대응, 독립형 구조를 통한 건조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알려짐. 양사는 실증선을 통해 안전성·내구성·운용 효율을 검증하고 글로벌 선주 대상 운항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존 LNG 연료탱크 등 51척에 적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선, FSRU 및 수소·에탄·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짐.

Dark fleet hurdles cloud Trump's plan to ease tanker sanctions (TradeWinds)

<https://zrr.kr/RGLwVj>

미국이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으로 제재받은 다크플릿 선박의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나, 노후 선박의 안전 기준 미달과 보험·선급 요건 문제로 실제 유조선 운임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으로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 원유운반선은 7,760만DWT로 글로벌 선대의 16%를 차지하며, 제재 선박의 운항 효율 저하를 고려하면 제재 완화 시 원유운반선의 실질 공급이 약 5% 증가해 운임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짐.

Jera increases stake in Australia LNG development (Upstream)

<https://zrr.kr/66KBuY>

일본 정부 산하 자원·에너지 안보 기관 JOGMEC가 호주 Wheatstone LNG 개발 관련 지분을 일본 JERA에 전량 이전했으며, 10월 2일 거래 완료 후 JERA는 Wheatstone 사업 지분을 보유한 Pan Pacific Energy의 지분 50.1%를 확보했다고 보도됨. 이번 거래로 JERA는 Pan Pacific Energy를 통해 Wheatstone 가스전 지분 10%와 액화설비 지분 8%를 간접 보유하게 됐으며, 기존 JOGMEC과 JERA의 Pan Pacific 지분율은 각각 42.08%, 8.02%였다고 알려짐. 2017년 가동을 시작한 Wheatstone LNG는 연간 89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